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4.15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산업계

- **BMW 미래재단, 충남 14개 분교 초청 과학교육 성료**(25.4.14, 뉴시스)
 -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충남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'분교 초청 데이' 프로그램을 성공적 마침
 - 이번 교육은 충남 지역 14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, 총 32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, 참가 학생들은 과학 원리를 실험하는 '실험실'과 직접 친환경 자동차를 설계해보는 '워크숍' 프로그램에 참여
 - 실험실에는 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, 제동장치 등 4개 체험 장치가 추가돼 총 7가지 자동차 관련 과학 원리를 탐색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짐

□ 지자체

- **남해군 첫 수소충전소 15일 준공...하루 220대 충전 가능**(25.4.14, 연합뉴스)
 - 경남 남해지역 첫 번째 수소충전소인 '남해 수소충전소'가 오는 15일 남해읍에서 준공
 -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총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충전소는 하루 평균 220대의 수소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으며, 수소 차량 2대 동시 충전 및 수소버스 충전도 가능해 향후 지역 내 안정적 수소차 보급과 효율적 충전소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

- 전북도, 수소산업 이끌 '예비수소전문기업' 2차 모집('25.4.14, 전자신문)
 -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'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' 참여기업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힘
 - 지원 대상은 전북자치도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 중 현재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△수소 관련 매출실적 보유 △관련 기술력(특허 등) 보유 △수소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계획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하며, 선정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
 - 도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도내 수소 관련 기업 14곳을 선정·지원해 사업화 매출 증대, 신규 고용 창출, 수소전문기업 전환(예 아헤스)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냄

□ 학계

- 극동대, 수소안전 융합인재 양성 통합 워크숍('25.4.14, 가스신문)
 - 극동대학교(총장 류기일) 수소안전융합학과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,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수소안전 융합인재 양성 통합 워크숍을 실시
 - 이번 워크숍은 올해 새롭게 출범한 수소안전융합 대학원(석사과정)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, 현재 학생들이 소속된 기업과 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국책과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·연료전지 정성욱 PD를 초빙하여 '국내외 수소경제동향과 국가 R&D 추진현황'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음
 - 워크숍을 주관한 수소안전융합대학원 탁송수 학과장은 "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 할 수 있는 안전분야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신 이론과 수소인프라 현장경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"이라며 밝힘
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- 캐나다 알버타 법안 52, 가정 난방 수소 혼합 도입 및 전력시장 개편 추진 (CBCNews, 25.4.10)
 - 알버타 주정부는 천연가스 배급 시스템에 최대 5%의 수소 혼합을 허용하여, 가정 및 상업 난방에 청정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 - 유틸리티부 장관 Nathan Neudorf이 법안을 제안했으며, 고객 동의 조건 하에 규제 기관과 함께 적정 혼합 비율을 설정하여 수소를 혼합 공급*할 예정임
 - * 현재 사스카체완市에서 ATCO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2,000여 가구에 최대 5% 수소 혼합 가스를 공급 중임
 - 또한 에너지 및 유틸리티 지위 개정법(Energy and Utilities Statues Amendment Act)을 통해 전력시장 개편*도 함께 진행함
 - * 알버타 전력 시스템 운영자(AESO)에 신규 송전 인프라 비용 배분 결정 권한 부여 및 가변 전력원 중심의 '데이 어헤드 전력시장' 확대 계획 포함
 - 개편 내용은 '27년 발효 예정이며, 법안 통과 시 최대 20% 혼합 가능성 검토할 계획임



자료: Natahn Neudorf, 알버타 법안 52 개편 제안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IHI 등 6개 일본 기업, 인도 그린 암모니아 생산 투자 MoU 체결 (MitsuiOSK, 25.4.9)

- 미쓰비시 등 6개 일본 기업*들이 인도 오디샤에서 '30년까지 연간 약 4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 시설 투자 검토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함

* 6개 일본 기업: IHI, 홋카이도 전력, 미쓰비시 가스화학, 미쓰이 OSK, 미즈호 은행, 도쿄 센추리

- 해당 시설은 인도의 ACME Group*과 협력하여 건설되며, 생산된 그린 암모니아는 일본 등으로 안전하게 운송되어 비료 및 청정 에너지 원료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

* ACME Group: 인도의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생산 등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에 주력

- 참여 기업들은 암모니아 생산, 운송, 금융, 인프라 구축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검토하며, 특히 미즈호 은행은 '30년까지 2조 엔 규모의 제조업 지원 자금을 실행할 목표를 갖고 있음

* 각 기업별 주요 추진 내용

기업명	주요 추진 내용
IHI	일본 최초 그린 암모니아 가치사슬 구축에 앞장서 국내·국제 공급망 확장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 기여 목표
홋카이도 전력	Tomatoh-Atsuma 발전소 4호기에서 암모니아 활용 검토 및 홋카이도 토마콰이 지역에 암모니아 수용·저장·공급 시설 설치 연구 진행, 탄소 중립 추진
미쓰비시 가스화학	암모니아 탈탄소화 및 그린 암모니아 확대를 통한 탈탄소 사회 전환 기여 의지 표명
미쓰이 OSK	IHI와 MoU 체결해 일본 최초 그린 암모니아 수입 추진, 인도 생산 기지에서 일본 주요 터미널까지 해상 운송 후 내륙 배송 계획
미즈호 은행	수소·암모니아 공급망 개발 자금 지원의 중요성 인식, 2030년까지 2조 엔 규모의 자금 조달 실행 의도
도쿄 센추리	기존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 외 그린 암모니아 참여 검토, 탄소 중립 및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목표